

# 전주 대학생과 미얀마 유학생 우정 나눈다

### 시, '친구야! 아편타바!' 발대식 개최... 자국 상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유학생 정서 지원 도모

전주 지역 대학생들이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친구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6개 대학의 재학생 12명과 미얀마 유학생 12명이 모인 가운데 '친구야! 아편타바!'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편타바는 '힘을 내요'라는 뜻의 미얀마어다.

전주 대학생과 미얀마 유학생들은 이날 짝이 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한국의 전통 놀이를 즐기며 커피 사진을 찍는 등 친밀감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이들은 분기별로 △도서관 여행 △문화 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해 우정을 나눌 계획이다.

'친구야! 아편타바!'는 또래 친구들과 가리 소중함 인연을 맺고 마음을 나누며, 고민 상담과 응원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정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미얀마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6개 대학 총학생회 및 각 대학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왔으



전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6개 대학의 재학생 12명과 미얀마 유학생 12명이 모인 가운데 '친구야! 아편타바!' 발대식을 개최했다.

며, 대학생들이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해 흔쾌히 친구가 돼주겠다고 나서 이날 발대식이 열리게 됐다.

김승수 시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힘겨운 상황에 처한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해 우리 지

역 대학생들이 나서준 것은 따뜻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전주시 학생들과 미얀마 학생들이 연대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얀마의 봄'을 함께 기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그간 미얀마 유학생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 △방역 일자리 및 여름방학 기간 중 취업 제공 △마음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김윤상 기자



## 주민 참여로 살기 좋은 동완산동 만든다

### 전주시, 동완산동 새들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완산구 동완산동 일원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난 18일 마을 내 현장지원센터에서 '동완산동 새들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들마을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한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동완산동 새들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들마을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동완산동 곤지신3길 일원 노후 주거지 말집지역(3만643㎡)에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9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방비 △생활 인프라 확충 △휴먼케어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시는 앞으로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도시재생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공간혁신실장은 "새들마을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해 마을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새들마을사업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서비스·식료품 지원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가 몸과 마음이 허기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나섰다.

전주시 꿈드림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찾아가 상담서비스와 식료품을 지원하는 '꿈드림 달리버리' 사업을 전개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이번 1차 꿈드림 달리버리의 주제를 '이불 밖은 위험해'로 정하고, 103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컵밥과 3분 햄버그스테이크 등 다양한 식사 대체품을 제공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인관계 단절, 소외감, 우울 등을 느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원들이 직접 찾아가 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올해의 책' 3권 선정

### 햇빛전쟁 · 순례 주택 · 달랑개

전북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녹여낸 최기우 극작가의 희곡집 등 3권의 책이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독서전문가 추천과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햇빛전쟁(글 이순미·그림 이영환, 보리빛소리 어린이) △순례 주택(유은실 저, 비룡소) △달랑개(최기우 저, 평민사) 등 총 3권의 책을 '2022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어린이 부문 선정도서인 '햇빛전쟁'은 햇빛이 위험해진 세상에 맞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동화로, 편리함에 익숙해졌던 주인공 부아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에 맞서 주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청소년 부문 선정도서인 장편소설 '순례 주택'은 빌라촌과 아파트 주



민을 구분 지던 수리비에 가족이 살 곳을 잃은 뒤, 평소에 무시했던 '순례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다.

성인 부문 도서에 선정된 '달랑개'는 전북지역 대표 극작가인 최기우 작가의 네 번째 희곡집이다. 이 희곡집에는 △'판'과 '소리'의

참 의미를 묻는 '달랑개' △동학농민혁명의 아쉬움을 풀어낸 '녹두장군 한양 압송 처(次)' 등 전주와 남원을 주요 배경으로 한 다섯 편의 희곡이 수록돼있다.

선정된 도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리는 '2022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 △독서릴레이 △100일 필사 △독후감 공모전 △낭독 공연 △저자 초청 강연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2 전주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독서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80권의 후보도서를 추천 받았으며,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후보도서를 9권(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 별 3권)으로 압축했다. 이후 2주간의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2 전주 올해의 책'이 최종 선정됐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지난 3~16일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과 11개 시립도서관,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온라인 1923명, 오프라인 2107명 등 총 4030명이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평생학습관, 시민인문세미나 회원 모집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다음 달 1일까지 2022년도 시민인문세미나에 참여할 회원들을 공개모집한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철학세미나 강의를 시작으로 전주시평생학습관 인문공간 파사주에서 진행되는 시민인문세미나는 읽기 어려운 인문학 서적을 인문매개자의 강독으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토론을 통해 서로 배우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시민인문세미나는 △문학 세미나 △역사 세미나 △동양고전 세미나 △모더니티 세미나 △미술사 세미나 △철학 세미나의 6개 주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제별 강독은 김정배 원광대 융합교양대학 교수와 문경득 전주대 HK교수, 이형성 전남대 HK교수, 성기석 인문공간 파사주 대표, 이선 전북대 HK교수, 신민자 미술학 박사가 각각 맡

는다.

특히 기획세미나로 준비된 '중용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동양고전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중용을 함께 공부해 삶의 지혜를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민인문세미나는 세미나별 10회씩 운영되며, 인문학 공부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인문세미나는 수동적 학습에서 능동적 학습으로 강의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부내용을 예시이를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공부한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